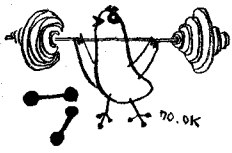


■ 특 집 ■



육성 중의 특수관리

윤 석 구

<신촌가금부화장 농장장>



I. 새로운 광열육추 방법

일부 미숙한 양계가는 육성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반면,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것은 양계가로서 큰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양계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병아리의 선택에서 시작하여 육성 기간의 관리 여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을 막론하고 육성기에 충실히 해야만 결실을 잘 맺고 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계 전문가들은 보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모든 양계가들을 계몽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에 그 방안을 들어본다.

열원을 개선한다.

현재 우리들 주변에서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연탄과 석유, 또는 전기나 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양계업자들은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연료비의 절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들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열원을 각각 달리하여 기른 계군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하여 보면, 연탄열을 이용하여 기른 닭이 전등열을 이용하여 기른 닭의 산란 능력을 따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연탄열이 다른 열원에 비하여 열의 균형 및 열의 조절이 어렵고, 열원이 약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건강추와 약추간의 차이가 심하여 외부기온이 낮은 때는 환기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 효율도 나빠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서 병아리 모두를 건강추로 기르기에는 난점이 많은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푸로판가스를 이용한 「부

루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설비가 절약되고, 경제적이면서도 육추를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광선열을 이용한 육추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이 광선열을 이용한 육추 방법은 종래의 모든 단점을 제거하여 질병의 방지와 병아리들이 밀집하는 버릇을 없애고 산란시 산란상자 외의 산란을 방지하는 잇점과 거치장스러운 칩카드가 필요없는 등의 잇점이 있으며, 병아리 동태를 관찰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되고 병아리 스스로의 활동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선열을 이용한 육추 방법이 병아리를 건실하게 기르는 데 있어서 실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광선열을 이용한 육추 방법]

영국의 홉프크라프트씨에 의하여 밝혀졌고 우리 나라에서는 필자가 제시하여 2년전 컷 시험을 하였는데 육성율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감염율이 적고 산란율이 많았다.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육추실 안에 적당한 장소를 정하여 500수 이하일 경우 제1도와 같은 장치로서 광선을 집중시키고, 그 밖에는 창문을 가리거나 창이 없는 계사로 빛과 열, 어둠과 추위의 한계를 인식시켜 준다. 또한 병아리는 광선에 의하여 타원 점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빛으로 몰려들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게 된다.

이때 병아리는 광선에 의하여 시력이 약화되지만 물과 사료를 구별하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면 아무런 지장도 없는 것이다. 빛이 밝으면 관리자의 변화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광선열을 이용한 또 한 가지 장점은 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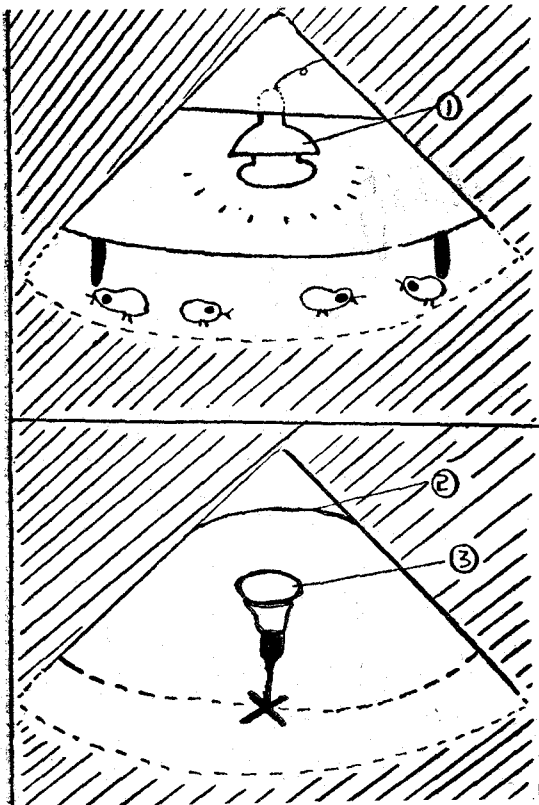
의 미스에 의한 셋바람의 위험이 없으며, 병아리는 열이 필요할 때와 불필요할 때에 자유자재로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장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밀사가 없다.

[육추사 설치 방법]

홉프크라프트씨의 육추 시설이나 론에이스씨의 방법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하려면 산형 샷갓 속에 반사경을 달고 500w~700w의 열전구를 사용하면 된다(제1도 참조).

광선이 비치는 바닥의 직경이 180cm이면 500~700수를 충분히 기를 수 있으며, 바닥에는 깔짚을 5~10cm 두께로 고루 깔아 주고 첫날은 샷갓 내에 전구 외에는 빛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입추 후 7~10시간 후에 필요할 때 외부 전구를 켜도 무방하나 외부는 어둡게 해주는 편이 안전하다.

〈제1도〉 적외선 열전구를 사용한 샷갓육추기
(직경 180cm, 500수용)



① 반사경 ② 반사경 빛남지 ③ 700w 적외선등

베이즈씨는 광선열을 이용한 육추 방법은 채란계는 물론 육계업자가 연속육추 또는 대군육추를 할 경우에도 성과가 매우 좋으며 폐사율이 적고 건강하며, 병에 대한 저항력이 보다 강한 병아리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기타 칸막이와 냉기의 위험이 제거될 수 있어 자본과 관리면에서 상당한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II. 경제적인 점등 관리

점차로 채란업자들이 점등(광선) 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단독적인 점등시험 연구는 부진한 실정이며, 외국의 점등 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점등 관리에 의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점등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점등 방법은 여러 가지 유사한 방법이 모두 사용된다.

현재 미국 양계계의 권위있는 연구진은 투자되는 전기료와 생산되는 산란 능력에 대한 비중에 관심이 크다.

최근 발표된 점등 관리의 일부를 소개하면, 육성기간 중의 점등은 첫 입추시에는 1주일간 종야 점등을 해 주는데 그 이유는 부화기로부터 발생 후 3~4일까지는 병아리 체내에서 수분발산이 많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4시간 불을 켜주어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첫 1주간의 종야 점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점감 점등의 방법에 있어서 2주령부터는 다단식 점감법을 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실천하는 데 많은 정신적 고통만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부 부화업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육성 중의 점등법은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점감 점등은 8주령부터 시작하는데 22수령 도달시까지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3.5시간을 점등하여 매주 15분씩 점감 점등하면 된다.

그러나 22주령시 일장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는 산란 점등을 15분씩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22주령이 끝나는 즉시 23주령 초에 일장시간을 12시간으로 늘려주어야 효과가 있다.

22주령이 동지(12.23) 이전에 도달하는 것은 구태어 점등을 하지 않아도 좋으며, 8주령에 맞지를 맞는 병아리와 동지전 22주령을 맞는 것도 점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즉 4월 28일 발생 추부터 7월 21일 발생추는 육성 점등의 집감 점등이 필요 없으나, 그 외에 발생하는 병아리는 집감 점등을 꼭 하여야 한다. 광도는 1피트축광(1R축광)이 점등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축광을 반으로 줄여도 무방하며, 오히려 산란계는 반으로 줄인 것이 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Ⅲ. 단취(부리 자르기)의 재인식

과거 닭의 단취는 별로 실시되지 않았고, 근래의 국제가 들어오므로서 점차 실시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양계업자들도 단취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단취기가 없어 자작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단취를 하였다.

단취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다가 중단한 실례가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취에 대한 재인식이란 문제를 놓고 많은 실무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닭에 대한 개성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육상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닭 1수당의 스페이스를 고려하여 육성기에 충분한 스페이스 확보로 투자 시설비는 고려하지 않고, 계군 단위 위주로 경제성을 보았기 때문에 별로 닭의 악벽이 생기지 않고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었지만 근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육종 방향이 닭만의 경제성 위주가 아니라, 닭을 기르는 모든 시설 및 부수적인 투자 또는 건물에 대하여 종합적 개량법을 실시하기 때문에 양계업자는 이에 뒤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식 습득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즉 시설 및 건물 기준에 대하여 가능한 정도에서 밀사하므로서 마리당 시설 상각비를 절감하고, 건물이나 면적단위의 생산을 높여 양계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밀사를 위해 부리를 자른다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일인 바 종류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초생추 단취

단취에는 초생추 단취와 중추 단취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란시의 단취는 악습이 생겼거나 또는 단취한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에나 하는 것이며 되도록 산란시에는 피하여야 할 것이다.

병아리 단취는 양계업자가 직접하는 것보다 부화장에 단취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이유는 병아리가 단취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나 물의 섭취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난황이 모두 소화되기 24~30시간 전에 미리하면 3~4일령에 실시한 것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그것은 난황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 받으며 모체로부터 모든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단취를 실시한 초생추는 최소한 2일간의 회복기간을 갖게 되는데 다음 주의 사항을 꼭 준수해야 한다.

첫째 단취한 병아리의 육추실은 물통을 낮게 놓지 말고 2.5cm의 두꺼운 받침을 놓아 물통을 높여준다. 그 이유는 부리를 잘린 병아리가 머리를 숙여서 물을 잘 마시지 못하고 입에 담겼던 물이라도 잘린 부리 사이로 흘러는 경우가 많으므로 머리를 약간 구부려서 주둥이만 살짝 들어서 물이 목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물은 충분히 끓여 식힌 다음 주고, 2~3일간 계속하여 비타민제나 종합 영양제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둘째 최초 7일간은 가루모이를 급여하며 톨모이는 삼가하고 사료통에 마찰되지 않게 사료를 충분히 준다. 그것은 사료통의 단단한 부분에 부리가 마찰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부화장에 단취를 의뢰하지 못했거나 또는 여태 가지 이유로 부득이 자가단취를 해야 할 경우에도 필히 단취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취의 가장 안전한 일령은 6일령이다. 단취기에는 크기가 다른 세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4.4mm의 구멍이 잘 맞는다. 이 구멍에 부리를 넣고 자르면 잘라지면

서 동시에 지저지기 때문에 간편하다. 칼날의 온도는 927°C가 적당하다.

(2) 중추 단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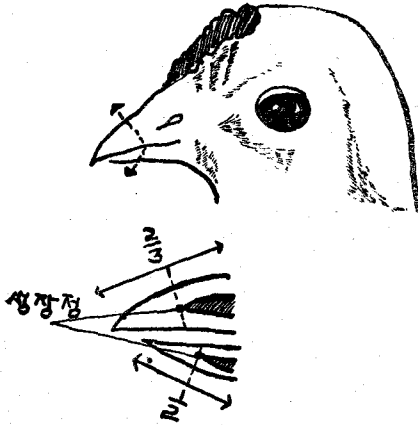
광선 판리나 스페이스 부족·영양소의 결핍 등에서 가장 악습이 많이 생기는데 사육 중 발생시는 일령에 구애됨이 없이 단취한다. 설혹 발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미연 방지를 위하여 6~10주령시에 실시하거나, 17~20주령시에 실시한다.

17~20주령시에 하는 것은 산란시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단취하고 6~10주령시에 단취했다 하더라도 17~20주령에서 단취한 부분의 교정 및 재단취를 해야 한다.

단취 방법

- 제1방법 : 윗부리 단취.
- 제2방법 : 윗부리부터 아랫부리 단취.
- 제3방법 : 윗부리 단취 아랫부리를 약간 지진다.

<제2도> 초생주 단취도



6~10주령 병아리는 제1방법과 제3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17~20주령시는 제2방법을 사용한다.

윗부리의 자르는 부위는 윗부리 첨단부 끝에서 콧구멍 사이 $\frac{2}{3}$ 를 잘라 내는데 당초 $\frac{1}{2}$ 정도 자르고 지혈시킬 때 지지면 $\frac{1}{3}$ 정도의 부리가 남는다.

아랫부리를 자르는 부위는 $\frac{1}{2}$ 정도 잘라서 지혈시킬 결 성장점을 약간 지저 주면 아랫부리가 크지 않는다.

중추의 단취시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기가 추울 경우 실내 온도를 13~15°C가 되도록 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시간을 골라 단취를 하는데 기온이 27°C 이상되면 지혈이 곤란하고 단취 후 완전히 지혈시켰다고 하더라도 출혈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고, 만일 출혈되는 병아리는 다시 지저야 한다.

둘째 단취 작업이 끝나면 7~10일간은 사료나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바닥으로부터 3cm 이상으로 준다. 물은 끓인 후 살균된 것을 먹게 한다. 이때 물의 온도는 15°C가 좋다. 평사일 경우 모이통이나 물통을 3할정도 더 비치한다.

셋째 단취시에는 계사 이동을 되도록 피하여야 하며 최소한 15일 이내에 옮겨서는 안 된다.

넷째 평사일 때는 깔짚을 충분히 깔아준다.

다섯째 예방 접종을 10일 이내에는 금할 것이며, 약추나 병제는 하지 않는다.

여섯째 야간 단취 작업시는 농적색 전구를 사용하면 닭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포를 덜어준다.

(축) 발 전

세계 제일의 경제계 『횃샤』 원종계 부화!!

광 일 종 축 장 대표 진재람

주소 : 광주시 산수동 278. Tel. ②7535

대 체 구 좌 : 전 주 183